

■ 여의도 칼럼

“ 자식자랑, 아내가 아니라 선생님이 말하게 하라 ! “

최윤식 / 광주대학교 광고정보학과 교수

내가 더 젊었을 때, 잉그리드 버그만이 '필립모리스'를 핀다는 기사를 읽고 담배도 피우지 않던 내가 '모리스' 한 갑을 피워본 일이 있다. 이십 센트로 같은 순간에 같은 기쁨을 가졌던 것이다. 담배와 술 그리고 화장품까지 관록이 붙는다. 웰링턴이 다닌 이튼스쿨, 글래드스톤이 앉아서 공부하던 책상, 이런 것들의 서광은 당연한 것이다.

미국 보스턴 가까이 있는 캠브리지라는 도시에 롱펠로우의 '시골 대장장이'라는 시로 유명해진 큰 밤나무 하나가 서 있는데, 이 나무가 도시계획에 걸려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 신문 사설에서까지 대립된 논쟁이 벌어졌으나, 마침내 그 밤나무는 희생이 되고 말았다. 소학교 학생들은 1센트씩 모아 그 밤나무로 안락의자를 하나 만들어 롱펠로우에게 선물했다. 시인은 가고 의자만이 지금도 그가 살고 있던 집에 놓여 있다. 나는 잠깐 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누가 보지 않았나 하고 둘러보았다.(琴兒 피천득의 수필, '반사적 영광' 중에서)

모델이 제품을 팔게 하라

프랑스시장협회(AMF)는 지난 7일 새 밀레니엄 '자유 프랑스'를 상징하는 마르안느像 모델로 인기 모델 레티시아 카스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녀가 새로운 '프랑스의 얼굴'이자 '프랑스인의 연인'이 된 것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그녀의 조각상이 36,000여 프랑스 도시들의 시청 입구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모델로서 이보다 더한 어디 영광이 있으랴?

가끔, 모델은 의례 탤런트나 영화배우를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있는 광고주가 있다. 유명한 사람이 광고에 나오면 자기 회사나 상표도 단숨에 그 모델처럼 유명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세일즈 메시지보다 '우리 광고에 유명한 아무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듯 최고의 모델 또한 빌보드 차트 순서가 아니다. 유명하다고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모델료가 낮다고 무조건 나쁜 모델도 아니다.

광고 모델은 '세일즈 메시지의 전달자'다. '브랜드의 대변인'이다. 내 제품의 세일즈 메시지를 누구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면 가장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모델이 선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적절해야 한다. 유명한 모델은 '보통 사람이 쓰는 제품'이라는 메시지를 설득하는 데에는 그보다 큰 장애도 없다. 모델은 광고 목표에 따라, 광고 메시지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단이 되어야 할 모델이 종종 목표가 된다. 그래서 팔아야 할 상품은 안 팔고 밤마다 모델만 열심히 팔아서 모델료만 올려놓는다. 올해 썼다가 내년엔 다시 쓸려고 하면 그사이 모델료는 배 이상 올라 있기 일쑤다. 광고의 꽃은 모델이 아니라 제품이다. 모델을 팔지 말라. 그 모델이 제품을 팔게 하라.

광고의 꽃은 모델이 아니다

광고에서 모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하나.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건부가 행한 금연 광고 캠페인. 담배회사로 유명한 레이놀즈의 손자가 텅 빈 허름한 카페(밤이면 담배 연기가 자욱한 선술집 같은)에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은 담배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아뇨. 아마 절대로 모르실 겁니다. 담배회사들이 담배 속에 얼마나 많은 독성 물질이 들어 있는지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절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이야기는 담배 갑에도 쓰여 있지 않아요. 광고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제 이름은 피터 레이놀즈입니다. 레이놀즈(필자주: 윈스톤, 샬렘, 카멜 등의 담배를 생산하는 R.J. 레이놀즈의 창업주)의 친손자입니다. 우리 집안은 매년 70억 갑의 담배를 생산해내는 것으로 유명하지요.(하략)...”

“어떤 멍청이가 시바스리갈 병을 바꿨어?” 자신이 쓴 헤드라인을 보고 화를 내는(그 멍청이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으므로) 광고주 사장에게 빌 번버크는 이렇게 말했다. “자식이 아무리 잘 생기고 공부를 잘 해도 그 자랑을 절대로 부인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대신 교장 선생님에게 시키십시오.”

엄마가 자기 아들이 잘 생기고 공부도 잘 한다고 떠들면 듣는 언니(?) 기분이 어떨까? 그러나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모델을 고를 때마다 새겨야 할 경구다.